



www.akht.or.kr

#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Studies

The Academy of Korea Hospitality &amp; Tourism



## 여가활동만족도에서 여가시간, 여가비용과 거주지의 영향: 2018 대구사회 조사 사례

The influences of leisure time, leisure cost, and residence on leisure activity satisfaction: a case of the social indicators of Daegu, 2018

강상훈\* · 권영연\*\*

Kang, Sang-Hoon · Kwon, Young-Hyun

\* 동아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조교수, sanghoon@dau.ac.kr, 관심분야: 관광개발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holykwon@gmail.com, 관심분야: 산업분석 및 공간정보, 경제성 분석(교신저자)

### 요약

본 연구는 여가활동만족도에 여가시간(주말에 생활시간 압박정도), 여가비용(평균여가활동비용), 그리고 거주지(구·군)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18 대구사회조사의 원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빈도분석, 상관분석, 일원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 기법과 같은 자료 분석방법이 활용되었다. 주요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여가비용은 여가활동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에 여가시간은 여가활동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거주지는 여가활동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주지에 따라서 영향의 방향에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거주지가 대구광역시 남구와 달성군일 경우에는 여가활동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인구통계 변수에서는 월평균가구소득이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나타냈지만, 연령은 유의한 부(-)의 영향을 보여주었다. 분석결과는 여가활동만족도 결정에 거주지와 같은 지리적 요인이 유의하게 관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본 연구는 여가활동만족도 결정과 관련하여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거주지가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환기를 통해서 여가활동만족도 제고를 위한 이론적 논의 및 실무적 시사점을 결론에서 제시했다.

### 핵심용어

여가활동만족도, 여가시간, 여가비용, 거주지, 대구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leisure time, leisure cost, and residence on satisfaction with leisure activity. Using the data from the Social Indicators of Daegu, 2018, this study carried out a series of analysis, such as frequency, correlation,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reveal that the leisure cost (i.e., the average cost of leisure activity) wa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influence on satisfaction with leisure activity, whereas the leisure time (i.e., time pressure on the weekend) was negative. Residence of respondents also influenced on satisfaction with leisure activity, while the direction of those influences was different. For example, living in particular districts (i.e., Nam-gu and Dalseong-gun) was negatively related to satisfaction with leisure activity. Of demographic variables, monthly household income was positively, but age was negatively related to satisfaction with leisure activity.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claims the importance of consideration applying geographical concepts to the research of satisfaction with leisure activity. Along with geographical equity issues in satisfaction with leisure activity in a metropolitan city, the study discussed s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regarding enhancement of satisfaction with leisure activity.

### KEYWORDS

leisure activity satisfaction, leisure time, leisure cost, residence, Daegu

### ACCEPTANCE INFO.

2021.02.02. 원고 접수  
2021.02.15. 1차 수정본 접수  
2021.02.17. 2차 수정본 접수  
2021.02.22. 최종 수정본 접수  
2021.02.22. 최종 게재 확정  
3인 익명심사필

###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I. 서론

만족도 높은 여가활동경험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Chick et al., 2018). 그렇지만, 여가활동경험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가활동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의 극복 또는 타협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과 비용이 여가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김의재·강현욱, 2020; 대구광역시, 2019; Crawford & Godbey, 1987; Crawford et al., 1991; Jackson, 2005; Jackson et al., 1993). 예를 들어서, 여가활동비 마련과 시간관리 노력은 진지한 여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황선환·서희진(2009)은 보고했다. 김경식·이경선(2014)의 연구에서는 여가제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가활동비 마련 노력이 여가참여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여가활동에서 시간과 비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여가활동 참여 제약 요인에 관한 연구는 Crawford & Godbey(1987)에 의해서 개념화된 이후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여가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심리적인 측면과 관련되는 내적 제약 요인이 대인적 제약 요인이나 구조적 제약 요인보다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Jackson, 2005). 하지만,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징이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이훈 등, 2004).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환경 만족은 여가인식(예, 여가활동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박광원·강현국(2017)은 보고했다. 홍석호·김순은(2016)은 지역 유형(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그리고 농촌지역)에 따라서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과 관련된 제약 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즉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구조적 제약 요인이, 반면에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내적 제약 요인이 중요한 제약 요인이었다(홍석호·김순은, 2016). 비록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이 여가 현상 이해에서 지역적 특성의 고려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지만, 여가활동만족도(leisure activity satisfaction) 결정에 사람들의 거주지역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비록 홍석호·김순은(2016)의 연구가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그리고 농촌지역 간에 제약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했지만, 분석을 위해 고려된 지역의 공간 단위가 크다는 한계가 있다. 가령, 본 연구의 사례인 대구광역시는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며, 7개의 구와 1개의 군으로 이뤄져있다. 따라서 홍석호와 김순은(2016)의 연구처럼, 비록 도시화정도에 따라서 지역을 유형화해서 분석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도시 안에 위치한 하위 지역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여가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여가시간(leisure time), 여가비용(leisure cost), 그리고 거주지가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은 대구와 같은 대도시 안에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구, 군)의 여가생활만족도에서 지역격차를 파악해봄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여가생활만족도 제고와 관련한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가생활만족도의 결정 요인으로서 거주지역과 같은 지리적 변수의 중요성을 파악해봄으로서 공간적 개념 또는 접근법을 활용한 여가 연구의 필요성과 더불어, 여가를 통한 도시 공간의 균형적 발전과 관련한 이론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여가만족도 연구

여가만족도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심리적 편익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박광희·김대관, 2014; 허중욱, 2014). 여가활동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신체활동에서부터 여가활동 참여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까지 다양한 요인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여성 및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강혜숙·한학진(2012)의 연구에서는 여가유형과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서 여가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허중욱·김흥렬(2016)은 통계청에서 생산한 '2015년 사회조사표' 자료를 이용하여 여가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혔었는데, 교육수준, 고용 안정성, 월별 가구소득, 주관적 계층 의식 등의 변수가 유의한 요인이었다. 베이비붐세대를 대상으로 한 김은정·최성기(2016)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진지한 여가활동의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여가만족도 결정 요인과 관련하여, 베이비붐세대의 경우에는 학력, 거주지, 그리고 동반자가 유의한 변수였다(김은정·임재문, 2017). 흥미로운 점은 본 연구의 주요한 관심사인 거주지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인천에 거주하는 것보다는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여가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Kang et al.(2018)의 연구와 유사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응답자를 구분해서 연구를 진행한 Kang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여가만족도가 비수도권 거주 응답자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유의했다.

## 2. 여가활동만족도 이해와 관련하여 공간적인 접근의 필요성

여가활동만족도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지만, 여가활동이 발생하는 공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로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서, 공공여가시설과 같은 여가공간이 여가생활만족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한진오 등(2019)의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강상훈(2020)은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여가 생활 만족에 여가시간과 여가공간의 영향력을 살펴봤는데 지난 1년간 평일 여가시간의 충분도가 여가 생활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지만 생활권 내 공공문화 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공간적인 측면과 관련된 변수도 여가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었다. 즉 여가만족 제고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여가시간과 관련한 이해만큼 여가공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오희균 등(2020)은 가구 재정상태 악화가 여가소비지출 긴축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로 조사해봄으로서 권역별 맞춤형 여가정책 수립을 통한 여가활동 활성화와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Hand(2020)의 연구는 삶의 만족도가 공간(도시와 농촌)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여가활동만족도 이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공간적인 측면의 고려 또는 접근이 여가현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3. 연구질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거주지(예,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별, 또는 도시와 농촌 등)가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간과 비용은 여가활동을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이자 여가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보고되고 있다. 그렇지만 거주지의 영향력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의 영향을 도시와 같은 거시적 수준에서 살펴보는 것 보다는 도시 안에 위치한 구·군 수준에서 살펴보는 것이 더욱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연구질문을 제안한다.

**연구질문1: 여가시간은 여가활동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질문2: 여가비용은 여가활동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질문3: 거주지는 여가활동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18년 대구사회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했다. 대구시에서는 대구 시민들의 삶의 질에 관한 주관적 인식과 변화하는 사회모습을 이해하고자 매년 대구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승인통계이다. ‘2018 대구의 사회지표’ 보고서에 의하면(대구광역시, 2019), 목표모집단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모든 시민(가구원)이었으며, 표본규모는 840개 조사구(8,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구당 10가구 약 16,000명이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조사가 실시되었다. 2018년 조사는 8,400가구 15,980명의 가구원이 응답했다. 이 조사와 관련된 보고서 및 원자료는 대구통계포털(<http://stat.daegu.go.kr/main/main.do>)에서 이용가능하다.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의 방문을 통한 면접조사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조사원에 의한 면접 기입과 응답자 직접기입이 병행되었다. 표본추출방법은 2단계 층화집락계통추출법이 사용되었다. 조사는 인구, 보건, 정보와 통신, 복지, 문화와 여가, 정부와 사회참여 부문과 더불어 기본항목인 경제활동상태 및 응답자 또는 가구사항과 관련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다(대구광역시, 2019).

조사에 참가한 응답자들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자의 53.2%가 여자였으며 남자는 46.8%였다. 교육정도과 관련해서는 대졸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졸이 13.2%로서 가장 낮았다. 혼인상태는 전체 응답자의 61.9%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6.1%는 이혼 또는 기타에 속했다. 맞벌이 여부와 관련해서는

홀벌이가 29.1%로서 맞벌이 21.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52.1%는 취업자였으며 직업에서는 기능, 노무 등과 관련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36.1%였다. 종사상 지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71.5%)가 임금근로자였다. 월평균가구소득에서는 40.4%가 100-3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했으며 13%는 500만 원 이상 이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의 거주지에서는 지역별로 고루 분포되었다. 달서구가 15.3%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구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10.6%였다.

〈표 1〉 응답자의 특성

변수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N=15,980)	남자	7,485	46.8
	여자	8,495	53.2
연령(N=15,980)	15-19세	702	4.4
	20-29세	1,730	10.8
	30-39세	2,116	13.2
	40-49세	2,853	17.9
	50-59세	3,089	19.3
	60세 이상	5,490	34.4
교육정도(N=15,980)	초졸 이하	2,447	15.3
	중졸	2,115	13.2
	고졸	5,364	33.6
	대졸 이상	6,054	37.9
혼인상태(N=15,980)	미혼	3,530	22.1
	배우자있음	9,887	61.9
	사별	1,596	10.0
	이혼, 기타	967	6.1
맞벌이여부(N=8,400)	맞벌이	1,763	21.0
	홀벌이	2,443	29.1
	해당없음	4,194	49.9
경제활동상태(N=15,980)	취업자	8,333	52.1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7,647	47.9
직업(N=8,215)	전문, 관리	2,103	25.6
	사무	1,200	14.6
	서비스, 판매	1,939	23.6
	기능, 노무 등	2,962	36.1
	군인	11	.1
종사상지위(N=7,897)	임금근로자	5,650	71.5
	고용주	793	10.0
	자영자	1,454	18.4
월평균가구소득(N=8,400)	100만원 미만	1,846	22.0
	100-300만원 미만	3,391	40.4
	300-400만원 미만	2,074	24.7
	500만원 이상	1,089	13.0
구군(N=15,980)	중구	1,694	10.6
	동구	1,974	12.4
	서구	1,891	11.8
	남구	1,755	11.0
	북구	2,257	14.1
	수성구	2,184	13.7
	달서구	2,443	15.3
	달성군	1,782	11.2

##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도구로 ‘2018 대구의 사회지표’ (대구광역시, 2019)에 사용된 설문지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설문 문항을 추출했다. 종속변수인 여가생활만족도는 여가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물이자 여가활동 참여로 발생하는 사후태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허중욱, 2014), 본 연구에서는 ‘귀하는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질문을 이용했다. 응답자들은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그리고 ⑤ 매우 불만족 중에서 답했다. 분석결과는 해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역코딩 후, 최종 분석에 적용했다. 말하자면, 1점으로 측정된 매우 만족은 5점으로, 5점으로 측정된 매우 불만족은 1점으로 값을 변환 후, 분석에 활용했다.

본 연구의 주요한 관심은 여가시간, 여가비용, 거주지, 그리고 여가활동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여가시간은 여가활동에 사용한 시간으로 정의했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시간과 생활시간 압박과 관련한 질문을 원자료에서 추출하여 사용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년(2017.9.1-2018.8.3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시간과 관련하여, ‘귀하의 여가활동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평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에 하루에 몇 시간을 여가활동에 사용했는지를 응답했다.

한편 생활시간 압박은 ‘평소에 얼마나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여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을 채택했으며 응답자들은 4점 리커드 척도(①항상 그렇다, ②가끔 그렇다, ③거의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에 평일과 주말의 생활시간 압박 정도를 표시했다. 4점 리커드 척도로 측정된 생활시간 압박은 역코딩 후 최종 분석에 투입했다. 여가활동에 사용된 비용은 여가활동에 사용한 월 평균비용으로 정의했고 ‘귀하는 매달 평균적으로 여가활동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사용하십니까?’ 의 질문을 원자료의 설문지에서 채택했다. 응답자들은 ① 3만원 미만, ② 3만원~5만원미만, ③ 5만원~10만원 미만, ④ 10만원~20만원 미만, 그리고 ⑤ 20만원 이상 중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했다. 거주지는 응답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구·군을 의미하는데 응답자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구·군을 명목척도(예,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로 응답했다.

응답자의 인구(연령), 그리고 사회경제적(월평균 가구소득) 특성은 통제 변수로 회귀분석에 적용했다. 선행연구(허중욱, 2014)에서는 응답자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적용하기도 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응답자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구분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연속형 변수인 5점 리커드 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최소자승(ordinary least squares) 회귀분석을 적용했다. 통계분석은 원자료에 포함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되었다.

## IV. 분석결과

### 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2>에 제시되었다. 여가생활만족도와 평일과 휴일의 생활시간 압박 정도는 해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역코딩 후 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여가생활 만족도는 5점 리커드 척도로 측정되었고, 평균은 3.09, 표준편차는 .96이었다. 응답자의 만족도 수준에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5.2%로 가장 높았고, 약간 만족이 24.4%로서 그 뒤를 이었다.

순위형 변수로 측정된 평균 여가활동 비용에서는 3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4.4%로 가장 많았고, 3만원에서 5만원 미만과 5만원에서 10만원 미만이 각각 21.9% 그리고 21.7%의 순위로 확인되었다.

생활시간 압박정도는 평일과 주말에 관해서 각각 물어보았고 4점 리커드 척도로 측정되었다. 평일에 생활시간 압박정도에서는 응답자의 33.7%가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했으며, ‘거의 그렇지 않다’ 와 ‘항상 그렇다’ 가 각각 25.8%와 25.5%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전체 응답자의 58%이상이 평일에 생활시간 압박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주말에 생활시간 압박정도와 관련해서는, ‘거의 그렇지 않다’ 가 35.9%로 가장 높았고, ‘가끔 그렇다’ 가 31.9%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도 17.3%의 응답자가 응답했다. 결국 응답자들이 느끼는 생활시간 압박정도는 주말보다는 평일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항목	빈도(명)	비율(%)
여가생활 만족도 <sup>1</sup> (M=3.09, SD=.96)	매우 불만족	887	5.6
	약간 불만족	2,860	17.9
	보통	7,223	45.2
	약간 만족	3,898	24.4
	매우 만족	1,112	7.0
평균 여가활동 비용 (단위: 만원)	3미만	5,501	34.4
	3-5 미만	3,505	21.9
	5-10 미만	3,461	21.7
	10-20 미만	2,110	13.2
	20 이상	1,403	8.8
평일에 생활시간 압박정도 <sup>1</sup> (M=2.70, SD=1.01)	전혀 그렇지 않다	2,392	15.0
	거의 그렇지 않다	4,126	25.8
	가끔 그렇다	5,390	33.7
	항상 그렇다	4,072	25.5
주말에 생활시간 압박정도 <sup>1</sup> (M=2.44, SD=.94)	전혀 그렇지 않다	2,770	17.3
	거의 그렇지 않다	5,735	35.9
	가끔 그렇다	5,100	31.9
	항상 그렇다	2,375	14.9

주: N=15,980; <sup>1</sup>=역코딩.

## 2. 상관관계 분석

연속형으로 측정된 변수들 간에 관계의 방향성과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두 변수 간의 모든 상관관계는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여가생활만족도는 평균여가활동비용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r = .263, p < .001$ ) 주말에 생활시간압박정도 간에는 가장 낮았다( $r = -.160, p < .001$ ). 여가생활만족도는 평균여가활동비용( $r = .263, p < .001$ ) 그리고 월평균가구소득( $r = .109, p < .001$ )과는 긍정적으로 상관되어있었지만 평일에 생활시간압박정도( $r = -.110, p < .001$ ), 주말에 생활시간압박정도( $r = -.160, p < .001$ ), 그리고 연령( $r = -.041, p < .001$ )과는 부정적으로 상관되어 있었다.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통해서 평일에 생활시간압박정도와 주말에 생활시간압박정도 간에 상관관계가 .788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두 변수 간에는 다중공선성이 의심된다. 평일에 생활시간압박정도와 연령 간에는 상관관계가 -.366으로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	1	2	3	4	5	6
1. 여가생활만족도 <sup>a</sup>	1.000					
2. 평균여가활동비용	.263	1.000				
3. 평일에 생활시간압박정도 <sup>a</sup>	-.110	.252	1.000			
4. 주말에 생활시간압박정도 <sup>a</sup>	-.160	.170	.788	1.000		
5. 월평균가구소득	.109	.439	.386	.305	1.000	
6. 연령	-.041	-.252	-.366	-.312	-.187	1.000

주: 모든 상관관계는  $p < .001$ 에서 유의하였으며, 통계량은 가중치를 적용 후 계산되었음; <sup>a</sup>역코딩.

### 3. 여가활동만족도에서 거주지 간 차이

거주지 간 여가활동만족도 평균에 유의한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했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결과 값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 수행과 관련된 기본 가정을 충족해야하는데 독립성, 정규성, 그리고 등분산성이 그것이다(Vogt & Johnson, 2011). 등분산성 검정은 여가활동만족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했으며 Levene 통계량은 1715.158 그리고  $p = .000$ 이었다. 따라서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후검증은 Dunnett T3을 선택했다. Dunnett T3기법은 다중비교 시 제1종 오류를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Vogt & Johnson, 2011).

가중치를 적용 후 계산된 여가활동만족도의 평균값은 5점 만점에 2.90점 이었다. 여가활동만족도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남구와 달성군이 3.03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반면에 수성구는 2.81로 여가활동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여가활동만족도의 전체 평균(2.90)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지역은 전체 8곳의 구·군중에서 3곳에 그쳤으며 남구(3.03), 달성군(3.03), 그리고 북구(2.97)가 해당되었다. 반면에 나머지 5곳인 달성군(2.97), 중구(2.89), 동구(2.88), 달서구(2.85), 그리고 수성구(2.81)는 대구지역 전체 여가활동만족도의 평균(2.90)보다 낮은 곳이었다.

각 구·군별 여가생활만족도 평균의 유의한 차이를 살펴보면 남구는 중구,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그리고 달서구보다 여가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달성군은 중구,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그리고 달서구보다 여가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북구는 중구, 동구, 서구, 수성구, 그리고 달서구보다 유의하게 높은 여가활동만족도를 나타냈다. 중구는 서구, 수성구, 그리고 달서구보다 높은 여가활동만족도를 보여주었다. 동구는 서구, 수성구, 그리고 달서구보다 높았다. 달서구의 여가활동만족도는 서구와 수성구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았고 서구의 경우에는 대구에 있는 8개의 구·군중에서 오직 수성구의 여가활동만족도 평균보다만 높게 나타났다. 수성구의 여가활동만족도 평균은 대구시의 나머지 구·군중에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지역(구·군)별 여가활동만족도 평균값의 차이는 5% 또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 여가활동만족도에서 거주지 간 차이 분석 결과

	평균	표준 편차	사후 검증 결과
남구	3.03	.955	남구>중구*, 남구>동구***, 남구>서구***, 남구>북구***, 남구>수성구***, 남구>달서구***
달성군	3.03	1.015	달성군>중구*, 달성군>동구***, 달성군>서구***, 달성군>북구***, 달성군>수성구***, 달성군>달서구***
북구	2.97	1.028	북구>중구*, 북구>동구***, 북구>서구***, 북구>수성구***, 북구>달서구***, 북구<남구***, 북구<달성군***
중구	2.89	.862	중구>서구*, 중구>수성구*, 중구>달서구*, 중구<남구*, 중구<북구*, 중구<달성군*
동구	2.88	.899	동구>서구***, 동구>수성구***, 동구>달서구***, 동구<남구***, 동구<북구***, 동구<달성군***
달서구	2.85	.891	달서구>서구***, 달서구>수성구***, 달서구<중구*, 달서구<동구***, 달서구<남구***, 달서구<북구***, 달서구<달성군***
서구	2.83	.941	서구>수성구***, 서구<중구*, 서구<동구***, 서구<남구***, 서구<북구***, 서구<달서구***, 서구<달성군***
수성구	2.81	1.045	수성구<중구*, 수성구<동구***, 수성구<서구***, 수성구<남구***, 수성구<북구***, 수성구<달서구***, 수성구<달성군***
전체	2.90	.966	

주: 통계량은 가중치를 적용 후 계산되었음;  $F=881.541$ ,  $p<.001$

\* $p<.05$ , \*\* $p<.01$ , \*\*\* $p<.001$

### 4. 회귀분석 결과

여가생활만족도의 결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고찰을 통해서 도출된 변수를 독립변수로 적용하여 OLS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했다. 회귀분석 모형은 .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F(11, 948018)=11767.100$ ,  $p<.001$ ), 본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2%였다(수정된  $R^2=.120$ ). 말하자면 본 연구에서 유의하게 확인된 변수들은 종속변수인 여가생활만족도를 12% 설명한다. 다중공선성 진단은 허용 값 .4 이하 또는 분산팽창인자 값 2.5 이상을 적용했다(김태근, 2006). 다중공선성 진단을 통해서, ‘평일에 시간압박정도’ 변수와 ‘주말에 시간압박정도’ 변수가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었다. 따라서 두 변수를 별도로 회귀분석에 투입을 했었는데, ‘주말에 시간압박정도’ 변수를 투입했을 때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말에 시간압박정도’ 변수를 투입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표 5>에서 제시했다.

여가비용( $\beta = .271, p < .001$ )과 가구소득( $\beta = .060, p < .001$ )은 종속변수인 여가생활만족도에 긍정적으로 관련되었지만 주말에 생활시간압박정도( $\beta = -.235, p < .001$ )와 연령( $\beta = -.038, p < .001$ )은 여가생활만족도와 부정적으로 관련되었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거주 지역을 가변수(dummy variable)로 변형시켜 회귀분석에 적용했을 때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가변수 변형방법은 만약 응답자가 중구에 거주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방식으로 거주지역 변수를 가변수로 변형시켰다. 흥미로운 점은 모형에 투입된 7개의 구중에서 서구( $\beta = .058$ ), 달서구( $\beta = .029$ ), 동구( $\beta = .021$ ), 그리고 중구( $\beta = .013$ )는 여가생활만족도와 .1% 수준에서, 반면에 수성구( $\beta = .003$ )는 5%수준에서 긍정적으로 관련되어있었다. 하지만 남구( $\beta = -.018$ )와 달성군( $\beta = -.006$ )은 여가생활만족도와 부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며 .1% 수준에서 유의했다.

<표 5> 회귀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화 오류	$\beta$			공차	VIF
(상수)	3.180	.007		481.10	.000		
여가비용	.194	.001	.271	244.46	.000	.756	1.322
주말 시간 압박	-.241	.001	-.235	-221.78	.000	.730	1.370
가구소득	.058	.001	.060	52.88	.000	.866	1.155
연령	-.033	.001	-.038	-36.27	.000	.641	1.561
중구(=1)	.066	.005	.013	12.13	.000	.731	1.369
동구(=1)	.058	.003	.021	17.44	.000	.761	1.315
서구(=1)	.202	.004	.058	51.06	.000	.597	1.676
남구(=1)	-.067	.004	-.018	-16.12	.000	.562	1.779
수성구(=1)	.007	.003	.003	2.23	.026	.718	1.394
달서구(=1)	.067	.003	.029	22.67	.000	.825	1.212
달성군(=1)	-.021	.004	-.006	-5.44	.000	.848	1.179

주: 회귀분석은 가중치를 적용 후 계산되었음; 수정된  $R^2 = .120$ ; 종속변수=여가활동만족도(역코딩, 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여가비용=평균여가활동비용; 주말시간압박=주말에 생활시간압박정도(역코딩); 가구소득=월평균가구소득.

## V. 결론

본 연구는 여가활동만족도의 결정요인으로서 여가시간, 여가비용, 그리고 거주지의 영향력을 살펴봤다. 거주지의 공간적 스케일은 대도시 안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군 단위로 설정했었다. 회귀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여가비용(평균여가활동비용)은 긍정적으로, 반면에 여가시간(주말에 생활시간 압박정도)은 부정적으로 여가활동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의 거주지(구·군)도 여가활동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거주지별 여가활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및 방향에는 차이가 있었다.

여가는 시간적 개념, 비경제적 활동 개념, 그리고 마음가짐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서헌, 2017).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여가활동만족도의 결정에도 시간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비록 시간의 영향력이 크지만 여가비용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여가시간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여가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더욱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목할 점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서 여가활동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서구( $\beta = .058$ ), 달서구( $\beta = .029$ ), 동구( $\beta = .021$ ), 중구( $\beta = .013$ ), 그리고 수성구( $\beta = .003$ )에 거주하는 것은 여가활동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남구( $\beta = -.018$ )와 달성군( $\beta = -.006$ )에 거주하는 것은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지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흥미로운 점은 수성구의 경우 대구의 대표적인 부촌으로서 잘 개발된 도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어메니티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구·군에 비해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높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여가활동 만족도에서도 대구에 있는 전체 구·군 가운데 1위를 나타낼 것으로 당초 기대되었지만, <표 4>에서 확인된 여가생활만족도는 전체 8개의 구·군 가운데 최하위였다. 또한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도 수성구에 거주하는 것의 영향력은 나머지 구·군과 비교했을 때 미미했다. 비록 수성구가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이 거주민에게 만족도 높은 여가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수성구의 경우 높은 집값 등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거주를 포함하여 생활을 위해서 지불해야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용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수성구 거주 여부가 여가활동만족도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가활동만족도 이해와 관련하여 기존의 사회심리적인 접근법과 함께 공간적인 개념(예, 공간적 형평성) 또는 접근법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예컨대, 최근에 발표된 Hand(2020)의 연구는 삶의 만족도가 공간(도시와 농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을 보고했다. 그렇지만 대도시 안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구·군) 수준에서 여가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고, 본 연구가 이러한 선행연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인 점에 비춰봤을 때 기존의 특정 대도시 위주 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심의 접근법에서 탈피하여 도시 안에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탐색해본 것에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공간적인 것은 특별하다는 주장처럼(Nicholls & Kim, 2019), 사람들이 어디에서 거주하는지는 사람들의 여가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서 다시 확인이 되었다. 물론 공간적인 스케일에 따라서 연구의 시사점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연구 대상 지역의 공간적 크기가 국가 전체인지, 대도시인지, 또는 시·군·구인지에 따라서 그 시사점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여가생활을 보내는 거주지역의 영향력을 탐색하는 만족스러운 삶을 넘어서 일상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다. 여가공간과 같은 공공공간의 공급에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김동완, 2017).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간적인 스케일에서 사람들의 여가생활만족도 제고를 위한 토론이 다양하게 펼쳐지기를 기대해본다.

여가활동만족도 결정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거주지의 영향력에서 지역별(구·군)차이는 여가정책 수립 그리고 여가시설 및 자원의 공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지역적 특수성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여가활동만족도 결정에 여가비용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것은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여가시설 및 자원의 공급과 더불어 공급되어진 여가시설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결국 만족도 높은 여가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여가비용(평균여가활동비용)은 여가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여가시간(주말에 생활시간압박정도)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영향력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함께 밝혀냈다. 특히 응답자의 거주 지역 변수로서 도시를 구성하는 행정구역인 구·군을 분석에 투입하여 거주지역이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별 여가활동만족도의 영향력에서 차이는 각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여가현상의 공간적(지리적) 특징을 고려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별 여가환경의 공급 수준과 같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변수를 활용하여 여가현상의 공급자적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된다면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수요자 관점으로부터의 시사점과 함께 여가활동만족도 결정 이해와 관련한 이론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 적용된 변수들의 여가생활만족도 설명력은 12%였다. 2차 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시사점을 활용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서 여가생활만족도 설명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연구가 시작되기를 기대해본다.

## 참 고 문 헌

- 강상훈(2020). 여가시간과 여가공간의 만족이 여가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32(9), 135-150.
- 강혜숙·한학진(2012). 여가유형과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여성 여가만족 및 행복수준 관계분석. *호텔관광연구*, 14(2), 234-252.
- 김경식·이경선(2014). 중요타자의 여가지지와 여가제약협상 및 여가참가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38(2), 125-139.
- 김동완(2017). 머리말. 김동완(편), *공공공간을 위하여* (pp. 5-18), 파주: 동녘.
- 김은정·최성기(2016). 진지한 여가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활동 참여 베이비붐세대를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18(6), 22-40.

- 김은정·임재문(2017). 베이비붐세대의 여가활동유형과 여가만족도 연구. *호텔관광연구*, 19(3), 1-18.
- 김의재·강현욱(2020). 여가제약과 여가참가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 분석.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44(3), 59-68.
- 김태근(2006). *u-Can 회귀분석*, 서울: 인간과 복지.
- 대구광역시(2019). *2018 대구의 사회지표*
- 박광훈·강현욱(2017). 건강박람회 참여노인의 이벤트방문 태도와 지역사회 환경 만족 및 여가 인식의 구조적 관계.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41(3), 44-54.
- 박광희·김대관(2014). 여가공간 유형별 노인여가 특성 및 만족 분석. *관광레저연구*, 26(7), 579-595.
- 서헌(2017). 여가의 개념에 대한 탐색적 고찰: 주요 개념의 제한점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9(8), 367-377.
- 오희균·윤성준·이희찬(2020). 가구 재정상태 악화 시 여가소비지출 긴축의사의 결정변인 분석: 권역별 여가활동 및 인구통계 특성. *호텔관광연구*, 22(4), 1-13.
- 이훈·정철·정란수·이승구·정우철(2004). 여가활동과 제약요인 구조모형: PPA와 여가제약이론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16(2), 29-48.
- 한진오·정득·이종석(2019). 공공여가시설만족이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여가정책만족의 매개효과. *여가학연구*, 17(2), 61-85.
- 허중욱(2014). 여가시설 이용자의 여가만족과 여가제약. *관광연구저널*, 28(12), 203-213.
- 허중욱·김흥렬(2016). 여가활동 참여자의 여가만족도 결정요인. *관광연구저널*, 30(3), 227-240.
- 홍석호·김순은(2016).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 지역의 유형화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4), 125-156.
- 황선환·서희진(2009).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및 진지한 여가의 관계. *체육과학연구*, 20(2), 298-307.
- Chick, G., Hsu, Y.-C., Yeh, C.-K., Hsieh, C.-M., Ramer, S., Bae, S. Y., Xue, L., & Dong, E.(2018). Cultural consonance mediates the effects of leisure constraints on leisure satisfaction: a reconceptualization and replication. *Leisure Sciences*, DOI 10.1080/01490400.2018.1506724.
- Crawford, D. W., & Godbey, G.(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s*, 9(2), 119-127.
- Crawford, D. W., Jackson, E. L., & Godbey, G.(1991). A hierar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3(4), 309-320.
- Hand, C.(2020). Spatial influence on domains of life satisfaction in the UK. *Regional Studies*, 54(6), 802-813.
- Jackson, E. L.(2005). Leisure constraints research: overview of a developing theme in leisure studies. In E. L. Jackson (Eds.), *Constraints to Leisure* (pp. 3-19),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Inc.
- Jackson, E. L., Crawford, D. W., & Godbey, G.(1993).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5(1), 1-11.
- Kang, S., Vogt, C. A., & Lee, S.(2018). Does taking vacations make people happy? a regional disparity perspective.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3(11), 1021-1033.
- Nicholls, S., & Kim, J.(2019). Spatial is special: the need to consider spatial effects in leisure research. *Leisure Sciences*, DOI 10.1080/01490400.2019.1600441.
- Vogt, W. P., & Johnson, R. B.(2011). *Dictionary of Statistics & Methodology: A Nontechnical Guide for the Social Sciences*, (4th ed.), Thousand Oaks, CA: Sage.